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에 대한 몇 가지 의견

홍근수*

성서 번역 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존경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에게 보내 주신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감수용)」을 잘 받아 읽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감수를 부탁받는데 대하여 이는 저의 명예라고 생각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 평에 대하여 두 가지를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의 평은 구약성서의 창세기 앞부분과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대한 제한되고 짧은 평입니다. 성서 전체를 망라하여 읽고 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저의 역량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의 평은 전문적인 성서 번역에 관한 평이 아니고 다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학도로서의 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개역」 성서의 특징을 살리고자 한 원칙이 한계로 작용하였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개역개정판」 성서에서 반영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평, 형식에 관한 평과 신학적 문제에 관한 평 등의 순으로 몇 가지 평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일반적인 평

1) 종이가 아주 질이 좋고 얇아 성서가 그렇게 두텁지 않아서 휴대하기에 편리하여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글씨 크기가 커서 읽기 좋습니다.

* 향린교회 목사

3) 맨 앞의 목록(구약과 신약 모두)에 총 장수를 표해 놓은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 책의 이름 직후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실려 있는 ‘성경책명 약자표’를 이에 통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4) 범례에 “원문에 견부한 숫자는....”에서 ‘견부한’이란 어려운 말은 ‘붙여 놓은’으로, “원문에 가입한 ...”에서 ‘가입한’은 ‘기입한’으로 바꾸는 등 쉬운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문장이 끝났을 때나 절이 바뀔 때에 필요한 마침표, 콤마, 등, 그리고 따옴표 등을 모두 생략한 것은 불편함은 물론 문법상 가능한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6) 소제목을 달고 구별을 위해 파란색으로 쓴 것은 대단히 좋으나 위의 본문과 구별하는 정도의 간격을 띄우는 것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2. 형식에 관한 평

2.1. 구약성서(아래에서 인용하는 장 절은 모두 창세기의 것)

1) 1장 1절의 “하셨느니라,” 3절의 “이르시되,” 등은 현대인에게 적절치 않는 표현이므로 각각 ‘하셨다.’와 ‘말씀하셨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하시니”는 ‘하나님이 ’....’라고 이르셨다.’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1장 10절,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러한 표현은 뒤에도 반복되고 있다)를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로 두 다른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라 부르시는 것과 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서로 원인 결과 관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문장이 너무 긴 것이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모두 한 문장인데 그 내용으로는 인간 창조와 가축과 짐승, 생물의 창조와 이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데 이것은 각각 짧은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5)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

되...”는 중복적 표현이 나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 1장 31절 역시 위와 같은 중복이 있는데 즉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로 하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7) 2장 이하에 나오는 쓴 “사람”이란 표현은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므로 아담 또는 이브, 즉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일반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8) 2장 9절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이 표현은 3장 6절에도 나온다)라는 부분은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던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표현대로 하면 나무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설사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3장 8절은 주어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아담과 그의 아내가...”에서 주어가 중복되어 있어 앞에 있는 “그들이”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 신약성서 (아래에서 인용하는 장 절은 마태복음의 것)

1) 1장 22절에 있는 “선지자”(先知者)란 용어는 ‘예언자’(預言者)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씀. 선지자란 말은 ‘미리 아는 사람’ 또는 ‘먼저 아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말이 단순히 앞일을 점치는 사람 같은 의미로만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서의 원어인 ‘나비’란 원어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는 예언자란 본래의 의미가 아니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란 말의 예(預) 자 역시 ‘미리’라는 뜻이 있으나 그래도 선지(先知) 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2) 마태복음 1장 18절 앞에는 ○ 표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곳에서만 이런 표를 하는지? 그렇다면 구약성서에도 여러 경우가 없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6절, 6장 2절 앞에 ○ 이 있는 것은 왜인지요?

3) 구약성서 부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장이 너무 긴 것은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 또 7절에서 11절까지, 또 1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각각 한 문장인데 이는 현대인에게

는 더더욱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 1장 1절의 “...죽보라.”는 “...죽보이다.”로, 5절의 “...낳으니라(하니라)”는 “...낳았다.”로 하는 것이 원어 용법으로 봐서, 또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5) 1장 23절에 있는 것 같은 인용문들은 작은 글씨체로나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5장 22절, “형제를 대하여”는 ‘형제를 향하여’나 ‘형제에게’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 5장 36절,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검게”의 터럭은 ‘가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 7장 17절,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열매’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 7장 25절, “창수”란 말은 요즘 쓰지 않는 말이니 ‘홍수’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 8장 6절, “주여 내 하인이...” 는 ‘주여 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본래의 상황에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11) 13장 24절에는 “제 발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1절에는 “자기 발”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양자는 통일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 15장 1절에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는 무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아와...’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13) 15장 30절,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맹인과 병어리와 ...”는 이들에 대한 멸시 조의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여겨 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다리를 저는 사람과 신체장애자와 시력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과...’ 등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4) 17장 27절은 “우리가 그들이 ... 네가...”는 주어 격의 말이 여럿 반복하여 나오므로 읽기가 난잡한 것 같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 네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 18장 1절에 “제자들이”는 ‘제자들이’의 잘못 같습니다.

16) 18장 10절,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이 중복된 것 같으므로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7) 18장 26절, “...내게 참으소서...”, 29절에 “나에게 참아 주소서”는 모

두 ‘제계 참으소서’로 통일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18) 21장 31절의 “창기”는 ‘창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창기란 말을 요즘은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19) 21장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은 ‘그(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이라고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 22장 9절 “네 거리 길”은 중복이므로 그냥 ‘네 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21) 22장 11절, “들어올 새”란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는 데 이것도 요즘 별로 쓰지 않는 표현이므로 ‘들어 올 때’ 또는 ‘들어오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은 ‘그들의 제자들을...’로 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듯합니다.

23)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말김과 같으니”에서 무엇이 같다는 것인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말김과 같으니’로 하는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24) 25장 35절, “주었고...하였고...하였고...입혔고...돌보았고...”라는 것은 ‘주었고 ...하였으며, ...하였고...입혔으며...돌보았구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 26장 30절, “찬미하고”는 ‘찬미하면서’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미한 다음에 감람 산에 갔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3. 신학적 문제에 관한 평

본래의 「개역」 성서의 특징과 틀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서가 한국말이 서툴었던 미국 선교사들과 영어가 서툴었던 한국 초대 교인들의 합작 품이란 점과 신학적으로나 번역 면에서 불완전하고 잘못 된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그 후 많은 고고학적 발견과 신학적인 새로운 이론이 정설로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것들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서의 독자들은 더 이상 1900년 초기의 초대 한국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더더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고 과거에 얽매어 있

는 보수적인 문헌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는 현대 후기인들이 과연 그 좋은 성서를 열어 읽을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느니라’ 또는 ‘하니라’ 등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개역」 성서를 개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철자법을 따른다는 원칙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위의 그러한 용법도 오늘의 문법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휘들이 일반적으로 더 이상 오늘날 쓰지 않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게토’(ghetto) 언어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서는 일반으로부터 외면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명칭 문제인데 하나님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이해함직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엘, 또는 엘로힘이란 하느님의 이름이 ‘하나’ 또는 ‘하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구태여 하늘의 평양 사투리인 하늘과 하나라는 우리말의 하나님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지요? 또 여호와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 문법에서 야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판에 구태여 과거 여호와란 번역에 묶여 있을 필요가 있는지요?

4. 맺는 말

위의 평은 물론 「개역개정판 성경전서」 전체에 대한 것도, 또 제가 취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평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성서의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휘들과 표현들이 옛날 것들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고전적인 작품이나 옛 시조 같은 범주의 문학으로 대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성서는 그렇게 취급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현대 독자들을 겨냥한 과감한 번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개역」 성서의 정신을 살릴 수는 있으리라 봅니다.

지극히 부분적이고 그나마 매우 피상적인 평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또 더 많은 평과 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내올 것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월 4일